

교과 융합 수업지도안 들여다보기

‘융합형 인재’가 각광받는 요즘, 이런 인재를 길러내는 교과융합 수업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집니다. 이 코너에서는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은 교과융합의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수업지도안과 함께 수업 활용을 위한 교사의 조언도 실었습니다.

충북 매곡여중의 음악·체육·미술 교과융합수업

음악·체육·미술 하나로 묶은 ‘종합 예술 무대’ 선보여요

충북 매곡여중은 지난해 2학기, 1학년을 대상으로 음악 수업에 미술과 체육 교과 수업을 융합한 예술·체육 활동 중심의 교과융합 수업을 진행했다. △젬베 악기를 활용한 리듬(음악)과 △이에 맞춘 무용(체육)을 창작하고 △공연 시 착용할 가면(미술)까지 제작해 온전히 학생들의 힘만으로 ‘완성형 무대’를 선보이도록 한 것. 이 수업은 음악, 미술, 체육으로 분리된 교과를 효과적으로 융합하면서 교육부가 주최한 ‘2016 자유학기제 성과발표회’에서 우수 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예술·체육 과목이 한데 어우러진 이 수업을 위해 매곡여중의 최현주 음악 교사와 정애련 체육(무용) 교사, 최영수 매곡고 미술 교사는 일찌감치 방학 때부터 머리를 모았다. 최현주 교사는 “타 교과 선생님들과 여름방학 동안 워크숍을 하며 음악·미술·체육(무용) 융합수업을 준비했다”면서 “효과적인 융합수업을 위해 2학기에 배정된 음악 2단위, 미술 2단위, 체육 3단위의 수업 시간 중 일부를 할애해 ‘음악 1시간+체육 1시간’, ‘미술 1시간+체육 1시간’을 결합한 블록타임으로 수업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김수진 기자 genie87@donga.com

음악·미술·체육 교과융합수업 수업지도안

대상	과목	차시
중1	음악, 체육, 미술	17차시
학습주제	‘세계 속의한국과 한국속 세계’를 주제로 한 예능(리듬·무용·가면)창작 활동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젬베 연주를 통해 창의적 리듬감을 표현할 수 있다. ▶리듬에맞춘 무용 동작을 통해 다양한 신체표현을 할 수 있다. ▶형과 색을 활용한 가면 제작을 통해 나만의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다. 	
수업의도	음악, 미술, 체육 교과가 모두 예술 분야라는 공통점에서 착안해 각 교과의 평가요소 가 반영된 하나의 예술작품을 모듬별로 창작하도록 한 수업이다. △리듬 △무용 △ 가면이라는 각각의 창작요소를 통해 각 교과의 수행평가 기준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며, 호흡이 긴 모듬 활동을 통해 협동심과 사회성을 기를 수 있다.	

1~4차시 수업 주제 창작 활동을 위한 교과별 사전교육	
차시	교수-학습 활동
1차시	▶ 융합수업의 동기와 수업계획 및 수행평가(일정 및 기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진행
2차시	▶ 점베를 이해하기 위한 악기 탐색 및 동영상 관람 -점베 리듬 악기 사용법 익히기 -점베의 기본 리듬 반복 연습하기
3차시	▶ 무용의 기본 동작 익히기 -현대무용의 기본 동작(로코모션, 스텝, 턴, 점프) 익히기 -점베 리듬에 맞추어 기본 동작 반복 연습하기
4차시	▶ 아름다운 '나만의 나' 찾기 -아름다운 '나만의 나'는 어떤 모습인지 작성해보기 -모듬별로 돌려읽으며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이 진정한 아름다운 모습임을 이해하기

교사의 도움말 ▶ 융합수업에 대한 동기유발이 잘 될 수 있도록 첫 시간에 교과융합 수업을 하게 된 동기를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창작 활동을 모듬 단위로 하게 되면 창작의 어려움에 학생들 간 의견 충돌까지 겹쳐 수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모듬별 활동이 중심이 되는 수업의 특징을 잘 설명해야 한다. 특히 이 수업은 단순히 교과 수행평가만을 위해 진행되는 수업이 아니라 모듬원 사이의 협동심과 사회성, 무엇보다 창의성을 기르기 위한 목적의 수업임을 잘 이해시켜야 향후 학생들의 모듬활동을 보다 원활히 지도할 수 있다.

5~6차시 교과별 평가요소 심화교육	
차시	교수-학습 활동
5차시	▶ 음악에 맞추어 점베 연주를 익히며 창의적리듬 익히기
6차시	▶ 음악, 점베 연주에 맞춰 움직임 결들이기 ▶ 다양한 동작에 맞춰 리듬 변주해보기

교사의 도움말 ▶ 악기와 무용 동작에 대한 기초 수업 이후 바로 모듬별 활동을 진행하기보다 점베 리듬과 무용 동작이 몸에 익도록 충분히 심화 수업을 거치는 것이 좋다. 무용 동작과 점베 리듬이 잘 안 맞는 등 여러 돌발 상황이 발생하므로 수업 과정의 혼란을 줄이려면 수업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담당 교사들끼리 꾸준히 워크숍을 가지며 문제 상황에 대해 일관된 교수·평가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17차시		모듬별 창작활동 완성 및 평가
차시	교수-학습 활동	
7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듬 편성 및 조장 선정하기 - 모듬별 이름과 작품 이름, 작품 소개 정리한 보고서 작성하기 - 모듬별로 구성원 역할 정하기 ▶ 가면 제작을 위한 모듬별 주제 정하기 - '세계 속의 한국, 한국 속 세계' 주제와 연관된 모듬별 소주제 정하기 	
8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듬별 음악 및 작품 선정 회의 ▶ 가면 구상 및 제작하기 - 모듬별 소주제에 맞는 가면 구상하기 - 가면 제작 방법 및 재료 토의해 제작 진행하기 	
9~12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작 작품을 위한 모듬별 점베 연주 연습과 무용 연습 - 음악에 맞춰 동작 연결하기(동작 연결 중에는 높낮이 박자 변화주기) - 나만의 동작 만들어 기존 동작과 연결하기 ▶ 토의토론을 통해 모듬별 가면 수정 및 보완하기 ▶ 모듬별 창작활동 1차 수행평가 	
13~17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작 작품을 위한 모듬별 점베 연주 연습과 무용 연습 - 모듬별 가면 쓰고 반복 연습하기 ▶ 무대 발표 안내장 제작 및 홍보하기 ▶ 모듬별 창작활동 2차 수행평가(학교 축제에서의 공연 준비) 	
<p>교사의 도움말 ▶ 음악에 맞는 창작 율동과 창작 리듬을 만들어내는 모듬별 창작 활동 과정에서 학생들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등 다양한 창의성을 발휘하곤 한다. 이 때 다소 우스꽝스러운 동작이나 리듬이라도 모듬별 작품에 잘 녹아들도록 교사가 적절하게 지도해줘야 한다. 학생들은 자신이 만든 리듬, 율동이 반영되지 않을 때 섭사리 흥미를 잃기 때문이다.</p> <p>우리 학교의 경우 매 시간 자기 및 동료성찰 평가를 진행하는 한편 1차 수행평가는 학급 내에서, 2차 수행평가는 학교 축제를 무대로 실시했다. 전교생이 보는 무대를 수행 평가에 포함시키는 것이 학생들로서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하지만 큰 무대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감을 얻고 한뼘 더 성장하게 된다. 학생들이 전 과정을 잘 따라올 수 있도록 교사가 끝까지 이끌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p>		

교사의 코멘트

음악, 미술, 체육 각 교과에 할당된 이수 단위 일부를 묶어 블록타임으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교무과와 협의가 필요하다. 또한 하나의 창작 활동으로 최대 3개 교과의 수행평가가 이뤄지는 셈이므로 평가 범위 및 평가 내용에 대한 교과 간 협의도 필수적이다.

이 수업은 수업 준비 뿐 아니라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도 결코 만만치 않은데, 특히 비슷한 수업을 3년여간 진행하다 보니 수업 과정을 잘 따라오지 않는 학생들이 가장 큰 고민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에는 매 수업 시간이 끝날 때마다 학생들 스스로 자기 및 동료성찰 평가를 작성하도록 했다. 자기 및 동료성찰 평가는 자신이 스스로 수업 과정에 열심히 참여했는지 돌아보는 동시에 나의 동료가 나를 어떻게 평가했는지도 고민하게 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데 효과적이다.

- ▶ 최현주 충북 매곡여중 음악 교사
- ▶ 정애련 충북 매곡여중 체육 교사
- ▶ 최영수 충북 매곡고 미술 교사